

충남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우리의 경제생활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질적 삶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많은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약물 오염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도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2000년 96만명(전 국민의 2.04%)¹⁾에서 2007년 3월 201만명(전 국민의 4.02%)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 2003년 장애인 범주가 15종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장애인 절대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관련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에 사회적 관심도 강화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지니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며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증진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안을 방송국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1) 통계청 내부자료, 2007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설립이 가능케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이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증진조항이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소극적 복지차원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independency)'이라는 적극적 복지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충남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충남 장애인 복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는 생활안정, 이동,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세부부문으로 구별되지만, 본고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생활안정과 이동부문에 국한하여 현황 및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충남 장애인복지 일반현황

1. 장애인구

충청남도 장애인구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01,815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5.09%에 달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충청남도 전체장애인의 17.53%인 17,846명으로 가장 많다.

〈표 1〉 연도별 모자가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장애인 수	전체인구	비율(%)
계	101,815	2,000,844	5.09
천안시	17,846	531,193	3.36
공주시	7,619	129,862	5.87
보령시	7,296	108,526	6.72
아산시	9,689	217,112	4.46

서산시	6,971	152,279	4.58
논산시	8,726	132,814	6.58
계룡시	1,077	36,959	2.91
금산군	3,757	58,369	6.44
연기군	4,587	84,107	5.45
부여군	6,046	80,115	7.55
서천군	4,733	63,105	7.50
청양군	2,340	34,405	6.80
홍성군	5,244	90,242	5.81
예산군	5,533	90,507	6.11
태안군	3,517	64,082	5.49
당진군	6,834	127,167	5.37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007년 3월 현재 충남 장애인구의 등급별 특성을 살펴보면, 6등급이 22.30%인 23,27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2·3·5등급이 비슷한 현황이고 1등급이 10,258명으로 가장 적다.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등급)은 47,171명으로 충청남도 전체 장애 인구의 45.28%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이 64,481명으로 여성 장애인 39,695명보다 62.44% 많다.

〈표 2〉 충남 등급별 장애인구(2007년 3월 현재)

(단위 : 명, %)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104,176	10,258	18,301	18,613	14,449	19,279	23,277
비율	100	9.84	17.57	17.87	13.87	18.51	22.30
남	64,481	6,045	10,835	12,225	8,399	11,205	15,772
여	39,695	4,213	7,466	6,387	6,050	8,074	7,505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007년 현재 충청남도 유형별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55,252(53.04%)명으로 다른 장애인구에 비해 현저하게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각(10.22%), 청각(9.83%), 뇌병변(8.76%), 지적장애(8.1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법정장애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 호흡기(0.94%), 간(0.23%), 안면(0.08%), 장루(0.58%), 간질장애(0.39%)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다. 지역별 장애인구를 살펴보면, 천안시가 17.4%(18,209명)로 가장 많으며, 계룡시가 1.1%(1,113명)로 가장 적다.

충청남도 연도별 장애인 등록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50,930명에서 2007년 3월 104,176명으로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충남 전체인구의 약 5.3%에 해당한다.

〈표 3〉 충남 연도별 등록장애인구

(인구 :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	연평균증가율
계	50,930	60,273	67,701	75,313	83,589	90,306	101,815	104,176	14.9
증가율	25.2	18.3	12.3	11.2	9.9	11.0	12.7	2.3	
천안시	7,291	9,214	10,624	12,337	14,334	15,700	17,846	18,209	21.4
공주시	4,428	4,953	5,445	5,913	6,426	6,855	7,619	7,823	11.0
보령시	4,644	5,183	5,689	6,024	6,359	6,711	7,296	7,409	8.5
아산시	4,606	5,493	6,363	7,115	7,918	8,494	9,689	9,965	16.6
서산시	3,016	3,897	4,422	5,026	5,721	6,172	6,971	7,176	19.7
논산시	4,228	4,897	5,525	6,190	7,000	7,588	8,726	8,905	15.8
계룡시	394	446	568	660	761	884	1,077	1,113	26.1
금산군	1,953	2,265	2,519	2,818	3,098	3,365	3,757	3,844	13.8
연기군	2,299	2,588	2,880	3,255	3,731	4,013	4,587	4,673	14.8
부여군	3,335	3,831	4,214	4,576	5,027	5,385	6,046	6,209	12.3
서천군	2,584	3,112	3,479	3,761	4,085	4,346	4,733	4,816	12.3
청양군	1,233	1,475	1,604	1,781	1,884	2,059	2,340	2,394	13.5
홍성군	2,579	2,952	3,352	3,802	4,157	4,546	5,244	5,362	15.4
예산군	3,036	3,592	3,938	4,348	4,678	5,016	5,533	5,663	12.4
태안군	1,696	2,047	2,269	2,455	2,779	3,109	3,517	3,628	16.3
당진군	3,608	4,328	4,810	5,252	5,631	6,063	6,834	6,987	13.4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지역에 따른 연도별 장애인 등록추이는 계룡시가 2000년 394명에서 2007년 1,113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26.1%로 가장 높으며, 천안시 21.4%, 서산시 19.7%로 순으로 나타남. 보령시는 8.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전체의 추정 등록장애인구는 2008년 111,793명에서 2012년 142,262명으로 연평균 5.5%

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비율은 2006년 12월 현재 5.09%에서 2008년에는 5.98%, 2012년에는 6.84%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충남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추정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장애인 비율	5.51	5.85	6.19	6.51	6.84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충남의 시·군별 등록장애인 추정인구를 살펴보면, 계룡시가 2008년 1,206명에서 2012년 1,579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6.1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며, 보령시가 연평균 증가율 4.76%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충남 시·군별 장애인구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계	111,793	119,410	127,028	134,645	142,262	5.45
천안시	19,648	21,088	22,527	23,966	25,406	5.86
공주시	8,357	8,891	9,425	9,959	10,493	5.11
보령시	7,877	8,346	8,814	9,282	9,751	4.76
아산시	10,731	11,496	12,262	13,028	13,793	5.71
서산시	7,719	8,263	8,806	9,349	9,893	5.63
논산시	9,547	10,189	10,831	11,473	12,115	5.38
계룡시	1,206	1,299	1,393	1,486	1,579	6.18
금산군	4,109	4,374	4,638	4,903	5,168	5.16
연기군	5,017	5,360	5,704	6,048	6,391	5.48
부여군	6,638	7,067	7,496	7,925	8,354	5.17
서천군	5,146	5,476	5,806	6,136	6,466	5.13
청양군	2,558	2,723	2,887	3,052	3,216	5.14
홍성군	5,765	6,169	6,572	6,976	7,379	5.60
예산군	6,069	6,475	6,882	7,288	7,694	5.35
태안군	3,904	4,179	4,455	4,731	5,006	5.65
당진군	7,501	8,015	8,529	9,043	9,557	5.48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2. 장애인 시설

장애인시설의 전국분포를 보면, 2006년 현재 장애인구 대비 복지시설은 강원도가 장애인 1만 명당 15.4개소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충남은 전국 평균 8.2개소와 비슷한 8.7개소를 나타내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07년 현재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97개소이다. 시군별로는 천안(15개소), 공주(15개소), 보령(12개소), 서산(11개소), 아산(7개소) 등 5개시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61%가 분포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장애인생활시설 20.6%(20개소), 심부름센터 16.5%(16개소), 수화통역센터 16.5%(16개소), 장애인복지관 11.3%(11개소), 직업재활시설이 11.3%(11개소)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자립생활센터와 의료재활시설은 각 1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다.

〈표 6〉 충남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07년)

(단위 : 개소, %)

구분(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 호시설	단기보 호시설	공동생 활가정	자립생 활센터	의료재 활시설	체육 시설	심부름 센터	수화통 역센터	직업재 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계	11 (11.3)	7 (7.2)	4 (4.1)	8 (8.2)	1 (1.0)	1 (1.0)	2 (2.0)	16 (16.5)	16 (16.5)	11 (11.3)	20 (20.6)
천안시(15)	1	3	1	·	1	·	1	2	2	2	2
공주시(15)	1	1	1	3	·	·	·	1	1	2	5
보령시(12)	1	1	·	1	·	1	1	1	1	2	3
아산시(7)	1	1	·	1	·	·	·	1	1	1	1
서산시(11)	1*	·	2	1	1	1	3	2	·	·	·
논산시(5)	·	1	·	·	·	·	·	1	1	·	2
계룡시(0)	·	·	·	·	·	·	·	·	·	·	·
금산군(5)	1	·	·	1	·	·	·	1	1	·	1
연기군(4)	·	·	·	·	·	·	·	1	1	·	2
부여군(3)	1	·	·	·	·	·	·	1	1	·	·
서천군(5)	1	·	·	·	·	·	·	1	1	·	2
청양군(3)	·	·	·	·	·	·	·	1	1	1	·
홍성군(4)	1	·	·	1	·	·	·	1	1	·	·
예산군(3)	1	·	·	·	·	·	·	1	1	·	·
태안군(2)	1	·	·	·	·	·	·	1	1	·	·
당진군(2)	·	·	·	·	·	·	·	1	1	·	·

자료 :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

주: *는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 포함

2007년 3월 현재 충남의 장애인복지시설(97개소) 대비 등록장애인(104,176명)은 1,049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당 장애인수를 향후 장애인구에 적용하였을 경우, 2008년에는 104개소, 2009년에는 111개소, 2012년에는 133개소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08년 7개소, 2009년 14개소, 2010년 21개소, 2011년 28개소, 2012년 36개소 등 매년 약 7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충남 장애인복지시설규모 수요추정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추정장애인구	111,793	119,410	127,028	134,645	142,262
필요시설수	104	111	118	125	133
추가시설수	7	14	21	28	36

Ⅲ. 생활안정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대다수 장애인들은 장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전락할 정도로 안정적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지출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각각 16만원과 11만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무하며,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산후 조리 및 양육기간 동안 가사부담 경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충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부부장애인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타 지자체에 비해 기초중증 장애수당지원은 낮은 편이다.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도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책이 요구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관련 비용,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용의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병·의원이 부족하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은 급성 증상에 대한 단기 재활을 중심으로 근력이나 운동범위 증가 등 기본적인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재활에 머무를 뿐,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재활치료, 언어치료 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거환경 부문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택 개선 및 보급, 그리고 개조비용 지원 등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주택설계도의 개발이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남에서는 타 시도에서와는 차별적으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월동난방비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 준비와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충남에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의료재활, 주거생활, 이동, 의사소통 보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가 생활시설의 서비스개선이나 시설 확충에 치중하여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의 신규설치와 예산지원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농어촌, 도서,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은 재활서비스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기반시설(직업관련시설 이외)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가 2개소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과제

충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수당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되어야 한다. 모자보건 및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 관리, 응급의료 기관 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장애발생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애예방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정보 제공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하겠다. 저소득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되, 장애인 복지시설간의 기능을 특화하고 시설 간 활용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도 구축

되어야 하겠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확충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활시설의 공급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지원을 확대하되, 시설 신규설치와 예산지원을 놓어촌, 도서, 산간지역의 소외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복지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이동 및 접근 부문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05년 기준 2,148천명²⁾로 추정되며, 이중 약 97.8%가 재가장애인이다. 장애인중 77.7%는 혼자서 외출이 가능한 장애인이며, 465천명이 직장을 출퇴근하고 있으며, 54천명이 학교통학 등을 위해 매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가장 많고, 택시, 지하철 등의 순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중 44.8%가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뇌병변·호흡기 장애인 등의 어려움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³⁾ 충남의 뇌병변 장애·호흡기장애인의 비율은 약 9.7%에 이르고 있다.⁴⁾ 저상버스의 경우 2006년 현재 전국에는 89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저상버스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서비스(STS)의 경우 천안시에서 2005년 11월부터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별 1대씩 16대를 2007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콜차량의 경우 당진군 등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간 상호 이용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고 운영비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충남도는 교통약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자동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콜승합차량을 도입

2)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4) 충남도청, 2006 충남 장애인 현황

할 계획으로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망, 콜시스템 등 관련시설 간의 연계가 미비하며, 충남도의 특성상 각 시·군의 이동접근을 위해서는 콜차량 및 심부름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에는 아직 제약적 요인이 많이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천안시에서 시각장애인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적용되고 있을 뿐, 보행환경 전체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여객시설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는 되어 있으나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고, 이동접근 관련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가 미비하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비하거나 조례화한 사례는 없어,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과제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은 커다란 제약적 요인이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의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교통정보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교통수단의 이용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상응하여, 지방차원에서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통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중에 적합한 보행환경, 교통편의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의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V. 맺는 말

충남에는 2006년 12월 현재 충남인구의 5%에 달하는 약 10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과 똑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도와준다는 시혜(施惠)적 차원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복지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의료적, 재정적 차원에서의 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 없는 일반인의 의식도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충청남도, 충남장애인생활실태조사 및 복지발전5개년 기본계획, 2007